



#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도팀

## 뉴스초점

###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 전시장 업종별로 배치 관람효과 높여

오는 11월 12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수준의 축산박람회가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산박람회는 생산자를 위한 전시행사와 학술행사가 60%의 비중을 두게 되며, 소비자를 위해서는 우리 축산물 요리 솜씨 대회와 요리강습 및 안전축산물 소비자 교육 행사가 20%, 각종 이벤트 행사가 1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축산박람회는 20세기 말에 개최되어 지난 천년을 조명하여 새로운 천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육용병아리 생산감축 결의

#### 자율적으로 종계 30% 감축키로

육계가격 하락으로 육용 병아리 가격도 400원대에서 수직으로 100원대 이하로 급락하자 종계업계에서는 10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 병아리 가격의 폭락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한 바 그 원인이 병아리 과잉생산에 의한 수급불균형으로 결론을 내리고 우선 자율적으로 육용병아리 생산 감축을 위해 강제환우 근절, 사육중인 종계 30% 이상 감축, 종계입식 조절로 사육수수 감소를 도모해 나가 종계업계는 물론 육계업의 불황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각 종계·부화장에 긴급 생산 감축 결의 내용을 발송하였다.

### 12월 산란실용계 분양 중단키로

#### 11개 부화장 생산조절 위해

국내 산란 실용계 부화·종계장 대표들이 지난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실용계 농장 대표와 협의를 한 결과 계란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12월 1개월 동안 실용계 분양을 전면 중단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가 시행에 들어갈 경우 지난해 6월에 분양 중단하여 계란 생산량을 약 7% 감소한 효과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조절을 위해 범업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부화업자나 실용계 농장이 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를 역이용하여 11월과 1월에 입추를 늘린다면 심리적으로 병아리 가격만 인상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계란 생산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기의식을 채란인들이 공감하여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노계와 계란구입자금 27억 지원**

계란가격이 9월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생산비 이하로 유지되어 채란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본회는 농림부에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노계구입자금과 계란구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발기금에서 노계구입자금 12억원과 계란구입자금 15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였다.

이 자금은 지원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금리는 조합의 경우 5%, 일반업체는 8%가 적용된다. 지난 10월의 경우 계란 개당 생산비는 72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농장 수취가격은 특란 기준 53원대였다. 경기위축 이후 고난가에 대한 기대심리로 입추량이 증가하면서 신계 사육비중이 높아졌는가 하면 가금티푸스 등 생산성을 저하시

키는 질병 발생이 낮아져 계란 생산량이 소비수준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에 저난가가 유지되어 왔다.

**계란·닭고기 소비촉진 협조요청**

**학교급식시 사용량 증가 기대**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금년 3/4분기 하반기부터 농장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되어 본회는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차원에서 학교급식시 계란과 닭고기의 사용량을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계란·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다. 이와 함께 범 양계업계가 양계산물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 별로 감산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백세미 생산 근절대책 외주작업**

**서면으로 의사확인 후 시행키로**

산란실용계와 육용종계를 교잡하여 생산하는 잡종 병아리가 삼계시장을 공략한 이후 1.2kg 잔세미 시장은 물론 1.5kg선인 센타 시장까지 파고들어 기존 육용 종계업체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실용계를 판매용으로 생산하는 종계는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본회 종계분과위원회에서는 불법 백세미 생산 근절을 위해 이와 관련되는 업무추진을 외주 발주키로 하고 종계인들의 의사를 서면으로 취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계**